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우기 및 혹서기 사고예방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

✎ 이천구 기자 | ⌚ 승인 2025.06.12 11:39



[내외일보] 이천구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(지사장 김태호)는 6월 11일 직원 및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 및 혹서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.

김포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날 회의에서는 작업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 외에 우기 및 혹서기 대비 현장 점검 요령과 온열사고대처,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한, 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의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현실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.